

출장복명서

출장기간: 2009.5.17 - 5.23

출장지: 타이베이, 홍콩

일자별 수행사항

□ 5.18 오전 10시 - 12시

- 국립 타이완 정치대 천샤옹 교수와 함께 타이페이 101 방문하여, 타이페이 101 Cathy Yang (임대담당) 부사장 면담.
 - 타이페이 101은 타이베이 시 신의구에 아시아 국제금융지구 개발의 상징 프로젝트로 BOT 방식으로 건설, 2005년에 완공.
 - 대주주는 Taiwan Stock Exchange를 포함한 보험회사임
 - 현재 사무실 80% 임대중이며 나머지 20%는 중국 관심기업에 대여하기 위해 마케팅 중 (임대료는 평당 3500 NT\$)
 - 주요 임대 기업으로는 ING, KP&G 등임
 - 신의구 국제금융지구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나 원래 의도했던 국제금융지구로서의 위상을 달성하는 데에는 미진
 - 중국-타이완 간 관계 개선으로 중국의 고급쇼핑객과 중국 주요 은행 및 대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(중국은행과 현재 의향서 체결)
 - 부대 쇼핑센터와 전망대를 찾는 주요 고객은 타이완 주민을 비롯 중국, 일본 관광객임
 - 타이완/타이베이가 가진 중국 본토에 대한 이점으로 중국어(만더린) 사용, 보다 글로벌화된 인재 및 기업/생활환경을 들고 있음
 - 타이베이의 향후 유망산업으로 중국인 대상 의료서비스 및 관광을 지적

□ 5.18 오후 2시 - 5시

- 국립타이완정치대 천샤옹, 국립타이완대 수진위, 타이완대 건설계획연구소 화창이박사 및 타이완정치대 천정원 교수 등과 중국-타이완 관계 개선에 따른 도시구조변화에 대한 토론회
 - 수진위·천샤옹 교수 모두 최근 새로운 제품생산 방식에 대해 주목

- 광둥성에서 생산되는 이동전화기는 노키아 등을 모방한 것이기는 하나 이들 브랜드제품의 1/3정도 가격에 90% 정도 기능을 갖춘 제품을 생산 중국 시장에 판매 (이를 山寨機라고 함)
- 타이완기업 입장에서 미국수출시장의 쇠퇴로 중국내수 시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, 중국정부의 정책과 대타이완 수용자세가 그 만큼 더욱 무게를 가짐
- 중국 내수시장의 개방은 타이완기업에게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
- 화창이 교수에 의하면 타이완은 경제적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에 흡수당할 가능성이 농후
- 화교수는 타이완/타이베이의 틈새 분야로는 의료분야와 은퇴커뮤니티에 있다고 함
- 이와 유사하게 천정원교수는 타이완의 3가지 비교우위 분야를 의료, 하이테크, 인적자원 (특히 외국교육을 수료하고 외국문화 경험을 가진)
- 타이완-한국 간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우위 창출의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
- 수진위교수는 초국경지역의 거버넌스는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고 평가. 첫째는 타이완-중국 간 관계, 둘째는 타이완내 남북관계 (남쪽에 전통산업과 농업이 편재), 셋째 지역간 격차의 문제
- 천샤홍교수는 마지막으로 산새기 현상에 주목하면서, 이러한 현상이 이동전화기에서 노트북컴퓨터 등으로 확산되면 타이완 기업들은 중국시장 확보를 위해 중국기업을 위한 OEM기업으로 변신할 가능성을 언급(현재는 구미시장 수출 목적으로 구미기업에 대해 OEM으로 운영)
- 토론의 잠정적 결론으로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, 인재나 기술을 사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것임. 즉 조만간 주변 홍콩이나 타이완 또는 한국에 대등한 인재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. 따라서 아시아 3룡이 어떻게 틈새분야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의 과제를 제기

□ 5.19 오전 10시 - 11시 30분

- 타이베이항 국장 린창휘로 부터 타이베이항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 응답 (키룽시 및 타이베이 현 정부 관계자 동석)
- 타이베이항은 1992년에 항만개발을 시작, 1999년에 타이베이항으로 명

명, 2004년에基隆항의 보조항으로 지정, 2007년 국제상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자유무역지대 설치

- 타이베이항은 타이완 3대 해운회사인 양밍, 완하이, 에버그린이 출자하여 민관협동프로젝트 방식으로 개발
- 타이베이항은 현재 컨테이너 화물과 자동차를 주로 수출입하는 항만이며, 장래에는 타이완 북부의 주된 원양 컨테이너항으로 역할을 기대
- 양안관계의 개선으로 타이완-중국 간 수출입화물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나, 환적화물 증가는 기대하지 않고 있음
- 개발계획에 따르면 단순한 항만기능이외 문화, 관광 등의 기능도 복합적으로 개발할 예정
- 인근 타오유엔 공항과 함께 육해공 복합수송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○基隆항 방문 (오후 2시 - 4시)

- 基隆항은 타이베이항과 수아오항을 관할하는 타이완북부 거점항
- 基隆항은 카오슝항과 함께 타이완의 2대 항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, 최근 중국 항만의 급격한 부상으로 세계항만 물동량 순위에서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남 (물동량 자체가 감소하지는 않고 있으며, 2008년 기준 컨테이너 처리량은 2백만 TEU)
- 항만국 관계자 (라이 쿼샹 수석엔지니어)에 의하면 장래基隆항은 근거리 수송을, 타이베이항은 원거리 수송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할 계획이라고 함
- 근거리 (아시아역내) 수송에 특화하는 방안은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 지역내 수송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함
- 중국 항만과의 협력도 논의 중에 있으며, 주 대상항은 푸저우항이라고 함. 일본과 한국의 항만들도 타이완의 중국 근접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을 지적
- 基隆항만 당국은 중국 관광객의 증대를 예상하여 3개 부두를 지정, 면세점과 카지노 등 위락문화 복합시설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타이완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

□ 5. 19 오후 6시 30분 - 8시 30분

○ 2차 전문가 토론회 (타이완 교원공제조합내 식당)

- 참석자 산업기술연구소 투체천소장, 타이완경제연구소 쿵밍신 부원장 및 류 야오지 박사, 타이완정치대 천사홍교수
- 투소장에 의하면 타이완의 제조업 고용은 약 20%대이나 구조적으로 전통산업에서 하이테크 또는 고부가부문으로 변화
- 류박사는 중국의 성장이 타이완을 주변부로 밀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, 그 이유는 타이완의 인재, 타이완 기업의 동남아 등과의 다변화된 네트워크구조에 있다고 함
- 쿵 부원장은 인재, 즉 숙련노동과 전문가 그리고 틈새시장에의 특화 가능성을 언급
- 투소장은 타이완경제를 GDP 또는 GNP로 측정하는데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강조. 타이완 전문인력 약 백만 (이는 타이완 전체 화이트컬러 인력의 약 20%에 해당)정도가 중국 본토에서 활동 중임을 감안하면, GNP로 표시해야 타당
- 또한 네델란드난 벨기에가 타이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
- 그러나 R&D 분야는 타이완 정부가 지나치게 분산시켜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함
- 타이완기업 들이 중국의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 등에 진출하여 중국내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투자를 한다는 관찰에 대해서는 사후적 결과일뿐 의도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
- 타이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며,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광, 고부가농업, 사회서비스 등의 육성을 논의 중
- 타이완도 싱가포르와 함께 인재유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장기비자제도 미비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
- 타이완-중국 간에는 현재 ECFA(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)를 논의 중인데, 이는 마잉저우 정부가 제안하고 타이완의 민진당도 동의한 상태이며, 중국 정부도 우호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함
- 만약 타이완-중국 간 ECFA가 타결되면, 타이완은 중국과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□ 홍콩

- 5.20 오후 4시 - 5시 30분 (홍콩정부 도시계획국 마이클 천 도시계획주임 및 우 유청 상급계획사 면담)
- 우유청 계획사 홍콩-광둥 통합개발 계획에 대한 브리핑 (첨부 자료 1 참

조)

- 2007년 수립된 홍콩 2030 개발계획과 2009년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발표한 주장삼각주 개발 구상에 대한 소개
- 홍콩은 과거 홍콩 내부 발전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했으나 1997년 이후 경제 너머 광둥지역과의 통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, 현재 광둥성 정부와 선전시정부와 기반시설 통합 및 변계지역 공동개발 등을 긴밀하게 논의중
- 홍콩의 입장에서는 홍콩-광둥 성 전체의 통합보다는 우선적으로 홍콩-마카오-광저우를 잇는 만지대(bay area)개발을 통한 일체화된 개발계획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추진 중
- 광둥성과의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로서 과거 홍콩의 전통산업지구들의 재개발 및 재구조화를 거론 (예, 쿤통지구, 셴완지구 등)

○ 5.20 오전 9시 30 분 - 11시

- 홍콩대 Roger Chan 교수 및 George Lin 교수와 면담
- 홍콩의 미래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음 (홍콩대 Wang Gun Wen 총장의 견해)
- 첫째 중국에 흡수
- 둘째 홍콩의 정체성과 문화 유지
- 셋째 해외 진출 홍콩 주민들의 소규모 집단거주지(뱅크버, 시드니 등)와 연결되어 홍콩의 국제성을 유지
- 마카오는 홍콩과 달리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고 있으며, 오히려 베이징 중앙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상황
- 홍콩-광둥 간 교류 심화로 인한 홍콩의 변화를 드러내는 지구로 쿤통, 셴완, 톈수이와이를 들 수 있으며, 특히 후자는 중국에서의 유입된 노동력의 집단거주지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구라고 함

○ 5.20 오후 2시 - 5시

- 홍콩중문대 양춘교수면담
- 다수의 홍콩내 전문가들의 견해와 동일하게 양춘교수도 중국 정부의 정책은 상하이로 국제금융중심으로 육성하고 홍콩은 중국 남부의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
- 그간 홍콩은 타이완-중국 본토 간 물류, 무역 등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누려왔으나 타이완-중국 간 3통 이후 홍콩의 이러한 중개역할은 불필요

- 하게 될 것으로 보아 홍콩의 상대적 지위 저하를 예상
- 그간 홍콩은 중국내 수출지향 제조업에 주로 투자해왔으나, 중국시장의 성장과 구미시장의 상대적 침체로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
 - 그리고 연초에 발표된 ‘중국정부의 주삼각 개혁발전강요’ (2008-2020)에 따라 홍콩의 향후 위상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(첨부 자료 2 참조)

○ 5.22. 오전 9시 -오후 4시

- 홍콩-광둥간 변계 통과지점 중 하나인 록마차우 방문
- 홍콩과 선전시는 록마차우 통과지점 부근 기존 경계선의 중간에 위치한 섬을 생태관광, 문화,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지구로 공동 개발할 예정
- 쿤탕은 과거 홍콩의 섬유·의복 산업의 중심이었으나, 이들 산업의 광둥성이전으로 현재 상업 및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로 변신중
- 셴완지구도 과거 제조업관련 지구였으나 광둥으로의 제조업이전 이후 상업 및 주거 지구로 재개발되고 있는 중이며, 많은 공장 건물들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위한 매물로 나오고 있음을 확인